



# 성령 강림 대축일(5월 19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요한 20,19-23)



## 성령 강림

제자들이 좁은 방에 가득 모여 있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제자들은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 작품의 테두리에도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식물 문양을 넣어 장식적인 효과를 더해주고 있다.

그림 미상 | 1025~1050년경, 채색 삽화, 26.6x19.1cm, 폴 게티 미술관, 미국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42번 “오소서 성령이여”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요한 20,19)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진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22)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 성령의 7가지 은총과 9가지 열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달아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 권력과 같이 헛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히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살 수 있도록 지혜, 통달, 지식, 식견, 공경, 용기, 경외의 일곱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를 ‘성령칠은(聖靈七恩)’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일곱 가지 은총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받게 되는 선물이며 견진성사를 통하여 더욱 굳건해집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성령의 은총으로 마음과 행실이 변화될 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갈라 5,22-23)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오월은”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